

한·미간 FDI 매력도 비교 연구*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A Comparative Study on FDI Attractiveness Index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yung-Soo Ahn^a

^a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Digit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ceived 29 March 2021, Revised 24 April 2021, Accepted 27 April 2021

Abstract

The scale of global FDI has been decreasing since 2016 due to the ongoing US-China trade dispute, the strengthening of FDI inflow screening regulations with concern over strategic technology leaks, and the spread of reshoring trends due to the reinforcement of national preferences. Eventually, the competition to attract FDI between countries is expected to become more intense. Therefore, in order to attract high-quality FDI for Korea tha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t is pressing to evaluate and improve the domestic FDI attraction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ich areas of Korea's economic and non-economic environments need improvement for gaining advantage amid the fierce competition to attract FDI between countries, by the relativ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based on the ranking indicated in key FDI attractiveness indices. As a result, improvement is needed in the following areas. First, according to IMD's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2020," Korea was inferior to the US in terms of business efficiency, productivity, finance and business legislation in terms of government efficiency. Second, according to INSEAD's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2020," Korea was inferior to the US in terms of internal openness, external openness, employability, lifelong learning, access to growth opportunity, and business and labor landscapes. Third, according to WEF's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9", Korea was inferior to the US in terms of product market, labor market, business dynamism and workforce skills.

Keywords: FDI, National Competitiveness, FDI Attractiveness Index

JEL Classifications: F21, F23, L51, L52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Seoul Digital University in 2018.

^a First Author, E-mail: abs@sdu.ac.kr

© 2021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오늘날 세계는 과학기술 특히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다. 아울러 WTO협정 체결과 FTA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하여 각국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은 국내외 기업들에게 공히 개방됨으로써 기업들은 사실상 무한경쟁에 놓여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에는 국가경쟁력 제고 요소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FDI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 또는 투자자가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자본거래인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¹⁾는 단순히 자본만이 아니라 경영기법과 노하우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투자유치국 입장에서 보면 고용을 유발하고 소득을 증가시키며 국내 관련기업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유치국내 산업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투자유치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Dunning, 2003; Caves, 2007; Moon Hwy-Chang and Jung Jin-Sup, 2010; Yeo Taek-Dong, 2020)

이러한 이유로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FDI의 유치에 긍정적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Fig. 1>과 같이 글로벌 FDI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UNCTAD, 202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부족이 극심했던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하여 FDI 유입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노력이 추진되면서 투자규모의 비약적인 확대가 이

루어진 바 있다.(Statistics Korea, 2021)

그러나 패권 경쟁으로 인한 미·중 무역분쟁 지속, 자국기술의 유출을 우려하는 FDI유입 심사절차 강화, 자국우선주의 강화에 따른 리쇼어링 추세의 확산 등의 원인으로 2016년 이후 글로벌 FDI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2020년 글로벌 FDI규모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8,59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UNCTAD, 2021)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FDI유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신고기준 11.1% 감소한 207.5억 달러 유입을 기록했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1) UNCTAD는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FDI 실적이 쉽사리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UNCTAD, 2021),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부품과 상품의 안정적 수급을 중요시하면서 GVC 약화가 가속화되어 결국 국가간 FDI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양질의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FDI유치환경의 개선을 위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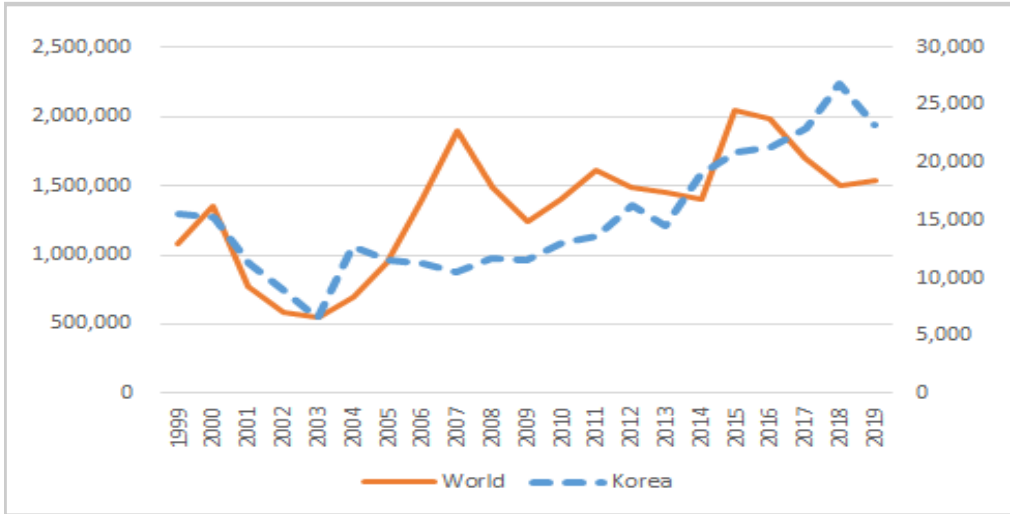
FDI 유치환경이란 투자자의 FDI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유치국의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들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FDI 투자대상국을 결정할 때, 투자자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다. FDI 유입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의 비교우위 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소들의 상대적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치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거나 활용하기 쉽게 지수화한 것을 FDI 매력도(FDI Attractiveness Index)²⁾라 할 수 있다. 국가단위의 FDI매력도는 일반적으로 국가경쟁력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조금씩 다른 접근방식과 명칭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순위는 상이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FDI

1) 본고에서 사용되는 'FDI'란 외국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의미하며 경영참여 의사가 없는 '간접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구별된다. 외국에서 국내 방향(Inbound)으로의 직접투자를 의미할 때는 'IFDI, 외국인직접투자'로 표현하고, 반대로 국내에서 해외 방향(Outbound)으로의 직접투자는 'OFDI, 해외직접투자'로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FDI'로 표현할 때는 방향이 의미없을 경우이며 방향을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IFDI' 또는 'OFDI'를 사용하기로 한다.

2) 본 연구에서는 도시나 지역이 아닌 국가를 FDI 매력도 분석 단위로 삼는다.

Fig. 1. FDI inward flows, 1999–2019

(World = BPM6, Korea = notice, unit: Millions of US\$)



Source: Author's edit based on UNCTAD(2020) and Statistics Korea(2021).

실적과 관련이 높은 지표들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주제인 FDI 매력도 혹은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널리 이루어져 왔으나 그중 본 연구의 분석방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이론은 투자동기이론으로서 Dunning의 OLI 절충이론(1977)과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1990)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의 다수 선행연구들은 시장규모, 임금수준, 실질 환율 등 특정 요인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서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실증하는 것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통합산정한 FDI 매력도에서 실제 FDI 유치결과와 관계가 높은 지표를 선별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미간 비교를 통해 FDI유치 환경의 차이를 밝히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선행연구들과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FDI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인들을 반영하여 산정된 FDI 매력도 순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FDI유치환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수십여 년간 전세계 국가 중 FDI유입규모가 가장 큰 미국을 비교대상으

로 삼아 미국의 투자매력도를 다양한 투자매력도(국가경쟁력)지수에서 제시하는 구체적 순위로 확인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동일 영역 순위와 비교함으로써 투자도착지로서 우리나라의 매력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출함과 함께 상대적으로 미흡한 영역에 대하여 구체적 지표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에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먼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 및 범위, 연구 방법 등을 기술한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 FDI 동기 및 결정 요인 검토'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FDI의 동기 및 투자목적국의 구체적 결정 요인을 확인한다. '제 III 장 FDI 매력도의 구성지표 검토'에서는 주요 FDI 매력도별로 구성지표를 검토한다. 각각의 FDI 매력도가 어떤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지표들이 앞서 살펴본 FDI 결정 요인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본 연구의 핵심내용인 '제 IV 장 한미간 FDI 유치환경 비교'에서는 주요 FDI 매력도별로 한미간 종합 순위와

지표별 순위 비교를 통하여 미국과 대비되는 우리나라의 FDI 유치환경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의 기반을 삼는다. 마지막으로 ‘제 V 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앞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FDI 유치환경 중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중심의 이론적 접근방법을 채택한다. 즉,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FDI 매력도를 발표하는 국제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의 조직들의 보고서와 통계 및 논문, 저서 등의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II. FDI 동기 및 결정 요인 검토

1. FDI 동기이론

기업들은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최초 설립된 국가³⁾에서 다른 국가로 그 활동범위를 넓혀간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는 이른바 FDI 동기이론은 Hymer(1970[1960])에 의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기업들의 FDI를 독점적 우위에 바탕을 두고 설명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기업의 해외 경영활동(FDI)이 현지기업에 비하여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독점적 시장구조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Coase(1937)는 기업이 외부의 시장구조를 통해 수행되는 기능을 기업내부에서 수행하는 것 즉, 내부화를 통해 시장의 불완전성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어 이를 국경을 넘어 수행할 경우 다국적기업이 탄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줄기의 이론을 전후로 <Tab. 1>과 같이 다양한 이론들이 출현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포섭한 Dunning(1977)의 절충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다음의 세 가지 우위를 활용하거나 확보하기 위하여 FDI를 하게 된다. 첫째, 기업은 인력이나 자본, 자원 등의 유형자산과 기술, 정보, 경영노하우, 마케팅 역량 등의 무형자산 등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서 비롯되는 소유의 우위(Ownership-specific

advantage)를 활용하거나 획득하기 위하여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 둘째, 기업은 저렴한 생산요소비용, 사회적 인프라나 경영환경, 정부의 효율성, 정치적 위험 등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위를 지니는 지역특유의 우위(Location-specific advantage) 즉, 기업을 특정 국가로 끌어들이는 국가의 입지적 매력도가 있는 지역으로 진출한다. 셋째, 기업은 수출이나 라이선싱 등 기업외부 활동에서 나타나는 비효율, 시장실패 혹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내부화를 통해 감소 또는 제거함으로써 나타나는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를 활용하기 위해 FDI를 선택한다. 한편 Dunning(1993)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동기를 시장, 자원, 생산효율, 전략자산 등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그중 자원과 시장 추구형 FDI는 초기 FDI이며 생산효율과 전략자산 추구형 FDI는 후속적 FDI라고 주장한다. (Dunning, 1998)

이러한 주장들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결국 소유우위(생산효율, 전략자산)와 지역우위(자원, 시장) 등 기업이 경쟁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거나 확보하기 위해서, 또 수출이나 라이선싱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나 불완전성을 회피할 수 있는 내부화우위를 활용하기 위해 FDI를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FDI 결정이론

1960년대 이후 해외에서는 FDI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실증분석 연구는 초기에 주로 자료 입수가 용이한 선진국 대상의 경제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통계자료의 입수가능성이 높아진 후에는 개도국으로 연구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아울러 비경제적 변수까지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Lee Seung-Rae et al., 2015)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FDI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간의 교역 및 경제 규모, 산업의 경제적 특징, 비경제적 특징, 국내 외투기업의 집적경제 등을 대상으로

3) 기업설립당시부터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들도 존재한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Preceding Researches on Motivation of FDI

Theories	Major Researchers	Main Point
Theory of Business Growth	Penrose(1959) Kolde(1968) Kindleberger(1969)	As companies that used to operate in the domestic market naturally expand their business areas from domestic to overseas markets, FDI occurs.
Theory of Differential Return	Macdougall(1958) Kemp(1964)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 or FDI, occurs due to differences in marginal return on capital
Monopolistic Advantage Theory	Hymer(1960/1976)	FDI occurs because a company with a company-specific advantage can enjoy a monopoly advantage even if it enters a foreign country
Internalization Theory	Coase(1937) Buckley & Casson(1976) Rugman(1981)	Multinational corporations attempt internalization to minimize inefficient transaction costs resulting from market imperfections
Behavioral Theory	Aharoni(1966)	Managers generally prefer domestic business to risky overseas expansion, but for the sake of their own safety and profits, managers go abroad
Product Life Cycle Theory	Vernon(1966)	International activities of a company change dynamically according to the life cycle of the company's products
Pecking-Order Theory	Hufbauer(1972) Wells(1973)	FDI occurs from developed countries to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for new products, followed by FDI from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to lower level countries
Currency Area Theorem	Aliber(1970)	FDI from strong currency countries to undervalued weak currency countries
Portfolio Theory	Stevens (1972) Prachowny(1972) Ragazzi(1973)	Because investors consider the rate of return and risk, they diversify their capital overseas for diversification, but FDI occurs due to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indirect investment.
Oligopolistic Reaction Theory	Knickerbocker(1973)	FDI occurs due to advance overseas in response to the other competitor and mutual competition among oligopolistic competitors
Eclectic Theory	Dunning(1977/1980/1981/1988/1993/1998)	FDI occur in order to utilize or acquire the company's Ownership specific advantage, Location specific advantage, and Internalization advantage

Source: Author's analysis.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국가단위만이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 분석과 외투기업의 국내 입지, 투자유형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된 연구가 나타났다.(Lee Seung-Rae et al., 2015; Yeo Taek-Dong, 2020)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Lee Seung-Rae et al.(2015)은 1996년부터 2014년의 기간 중 128

개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결정 요인을 FDI 유형별, 경제발전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 2>에서와 같이 전체 FDI에 있어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의 투자유인요소로 1인당 실질 GDP와 투자협정수가 양의 방향으로, 총 인구수, 인플레이션이 음의 방향으로 각각 유

Table 2. Influencing Determinants of FDI Location

Independent Variable	Whole FDI			Green-Field FDI			M&A FDI		
	Total	Devel oped Count ries	Devel oping Count ries	Total	Devel oped Count ries	Devel oping Count ries	Total	Devel oped Count ries	Devel oping Count ries
Real GDP per capita	+++	+++	++	+++	+++	0	+++	0	+++
GDP growth rate	0	0	+	+	0	+++	---	0	---
Population	+++	--	+	++	-	-	+++	0	+++
Inflation	---	---	---	---	0	---	0	---	0
Real Exchange Rate	+	0	+	+	0	-	++	---	+++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0	0	+	0	0	0	+++	+++	+++
Trade Openness	+++	0	+	+++	0	0	0	0	0
Business Freedom	0	0	0	0	+	0	0	0	0
Country Risk	---	0	---	---	0	---	---	0	---
Investment Agreement	+++	+++	+++	+++	0	+++	---	0	---
Investment Dispute	0	0	-	-	0	---	0	0	0

Notes: 1. 0 means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 is rejected in every model.
 2. +++ means that the positive effe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 is accepted in every model.
 3. --- means that the negative effe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 is accepted in every model.
 4. ++ means that the positive effe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 is accepted in most of models.
 5. -- means that the negative effe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 is accepted in most of models.
 6. + means that the positive effe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 is accepted in part of models.
 7. - means that the negative effe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 is accepted in part of models.

Source: Lee Seung-Rae et al.(2015).

의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FDI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요약해보면 <Tab. 3>과 같다.

FDI 발생의 이유와 FDI가 특정국가를 선택하여 나타나는 이유를 국가경쟁력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절대우위론(Smith, 1776), 비교우위론(Ricardo, 1817) 등 고전경제학 이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현대적인 국가경쟁력 연구는 Porter(1990)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Porter(1990)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해서 이전까지 기업과 산업 차원에 적용되던 경쟁력의 개념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동 이론과 모델에 따르면 국가의 경쟁력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다시 생산요소조건(factor conditions), 시장수요조건

(demand conditions), 관련 및 지원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기업 전략, 구조 및 경쟁관계(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의 네 가지 내생변수와 정부(government), 우연한 사건(chance)의 두 가지 외생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다이아몬드 모델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경쟁력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제경쟁과 인적자원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대신하여 GDD(Generalized Double Diamond), 9-Factor, DDD(Dual Double Diamond) 등 다이아몬드 모델을 수정·보완한 새로운 국가경쟁력 분석모델이 제시된 바 있다.(Moon Hwy-Chang, Rugman and

Table 3. Classification of Preceding Researches on Determinants of FDI Location

Determinants	Major Researchers
Market Size: Large	Scaperlanda and Mauer(1969), Schmitz and Bieri(1972), Lunn(1980), Root and Ahmed(1979), Wheeler and Mody(1992)
Wage level: low	Sader(1993), Tsai(1994), Owen(1982), Gupta(1983)
Real exchange rate: High → FDI decrease	Aliber(1970), Caves(1988), Froot and Stein(1991), Blonigen(1995), Blonigen and Feenstra(1996)
Real exchange rate: High → FDI increase	Blonigen(1997), Grubert and Mutti(1991), Swenson(1994), Kogut and Chang(1991), Klein and Rosengren(1994)
Barriers to trade: high	Mundell(1957), Schmitz and Bieri(1972), Culem(1988)
Former trade balance: deficit	Torrison(1985), Culem(1988), Tsai(1994), Shamsuddin(1994)
Former trade balance: surplus	Schneider and Frey(1985), Hein(1992), Dollar(1992), Lucas(1993)
Economic growth rate: high	Lim(1983), Schneider and Frey(1985), Culem(1988), Billington(1999)
Tax rate: low	Hartman(1984), Grubert and Mutti(1991), Hines and Rice(1994), Loree and Guisinger(1995), Cassou(1997), Kemsley(1988)
Previous tax rate: Low	Scholes and Wolfson(1990), Swenson(1994)
Trade openness: high	Kravis and Lipsey(1982), Lall and Siddharthen(1982), Hennart and Park(1994), Kumar(1987)
Institutional stability: low	Brunetti and Weder(1998), Wei(2000a, 2000b), Lee and Masfield(1996), Jun and Singh(1996), Gastanga, Jeffrey and Pashamova(1998)
Political Stability: Unstable	Henisz(2000), Delios and Henisz(2003), Egger and Winner(2005), Ko Suk-Nam(2006)
Trade scale and economic scale: Large	Rhee Dong-Kee and Cho Young-Gon(2000), Choe Chang-Gyu(2004), Yeo Taek-Dong and Lee Min-Hwan(2009)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large	Ha Jong-Wook and Choi Gui-Yun(2003), Ha Jong-Wook(2005), Lee Min-Hwan and Yeo Taek-Dong(2008)
Number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 Many	Lee Ki-Dong, Hwang Seok-Joon and Lee Min-Hwan(2008), Kim Jae-Hoon(2015)

Source: Author's edit based on LEE Seung-Rae et al.(2015)

Verbeke, 1998; Cho Dong-Sung, Moon Hwy-Chang and Kim Min Young, 2009) 이어서 Cho Dong-Sung and Moon Hwy-Chang(2013) 은 9-Factor 기반 GDD 모델을 적용하여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세계 62개국의 FDI 매력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Ⅲ. FDI 매력도의 구성지표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국이 FDI 투자자들에게 목적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

역우위만이 아니라 소유우위, 내부화우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결국 FDI 매력도가 높아져야 한다. 즉, 기업들이 소유우위, 지역특화우위 및 내부화우위를 확보하거나 활용함에 있어 타국과 비교하여 유리한 경제적, 비경제적 환경 즉 국가경쟁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

현재 FDI 매력도 혹은 이와 유사한 국가경쟁력을 지수화 한 것의 범주에 포함되는 다양한 지수들이 발표되고 있다.⁴⁾ 그러나 현실적으로

⁴⁾ The European House Ambrosetti(2020)에 의하면 130여개의 지수가 발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국내외 연구나 언론에서 빈번히

Table 4. Characteristics of Selected FDI Attractiveness(National Competitiveness) Indices

Indices	Publisher	Evaluation Method	Indicators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IMD	Evaluated in 4 areas, 20 categories, and 255 detailed items (including surveys)	Economic Performance, Government Efficiency, Corporate Efficiency, Infrastructure
Index of Economic Freedom	The Heritage Foundation	Measures the degree of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in 4 categories	Rule of Law, Government Size, Regulatory Efficiency, Open Market
Best Countries For Business	Forbes	Evaluation by combining indices created by WB, Heritage Foundation, WEF, Alliance, etc.	Property Rights, Innovation, Taxes, Technology, Corruption, Infrastructure, Market Size, Political Risk, Quality of Life, Manpower, Degrees of Freedom (Individual and Corporate Degrees of Freedom), Investor Protection, Bureaucracy, etc.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WEF	4 economic and non-economic areas Limited edition 2020 special edition COVID-19 crisis response evaluation	Enabling Environment, Markets, Human Capital, Innovation Ecosystem 11 priorities for future economic transformation
Global Attractiveness Index	The European House – Ambrosetti	34 indicators in 5 areas and dynamics evaluation reflecting the 3-year trend of these indicators	21 indicators including Openness, Innovation, Efficiency, and Economic Scale (same weight) 13 indicators of Sustainability 3 years of dynamics indicator
Global Innovation Index	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	Evaluated as five inputs and two outputs that promote national innovation activities	Input elements: Research institutes,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 market advancement, business advancement, Output elements: knowledge/technical outputs, creative/creative outputs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World Bank	Equal weighting of 10 indicators from start-up to exit alongside the company's life cycle	Entrepreneurship environment, building license, electricity supply, property rights registration, financing, protection of small investors, tax, customs administration, legal dispute resolution, efficiency of exit procedures
World's Best Countries To Invest In Or Do Business	CEO World Magazine	Evaluation based on 11 factors	Human resources, investor protection, infrastructure, taxation, quality of life, technical readiness, corruption and freedom in personal, trade, and currency aspects, etc.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SEAD	Evaluated in 6 categories 70 detailed items (29 questionnaires)	Corporate environment, openness, education and training, sustainability, job competency, innovation and leadership
The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OECD	Review and measure the four main types of regulatory restrictions related to FDI	1) Overseas capital restrictions, 2) Discrimination screening or approval mechanisms, 3) Restrictions on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as key position, and 4) Restrictions on other operations
FDI Confidence Index	A.T. Kearney	Survey	A survey of 500 executives from global companies in 30 countries, ranking the market with the most potential for attracting investment over the next three years.
Bloomberg Innovation Index	Bloomberg	Equal weight evaluation in all 7 sectors related to innovation	R&D concentration, manufacturing added value, productivity, high technology concentration, education efficiency, research concentration, patent activity

Source: Author's analysis based on each Index

다루어지고 있는 12개의 지수를 대상으로 한다.

FDI에 특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분석하고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2010)가 정의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한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어 다양한 국가경쟁력 지수를 그대로 FDI 매력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즉, FDI 매력도 혹은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다양한 지수들을 활용목적, 산정방법, 지표 구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지수들이 실제 FDI 유치환경의 상대적 우위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FDI 매력도 혹은 국가경쟁력 지수를 명칭과 활용 목적 면에서 보면 FDI를 주된 대상으로 개발된 지수와 국가경쟁력의 특정 측면 혹은 포괄적인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려는 지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산정방법에서는 통계를 활용하는 방식,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방식, 양자를 절충하는 방식, 다른 지수를 활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지표 구성에 있어서는 경제적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 비경제적 지표를 포함하는 방식, 특정 분야의 지표만을 검토하는 방식이 있다. 작성 및 발표의 주체로는 국제기구, 국가, 대학, 기업, 언론사, 국제민간조직,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Tab. 4>와 같다.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각 FDI매력도의 세부 지표는 매력도의 목적과 특성으로 인하여 서로 다르게 구성되며 가중치도 다르다. 따라서 각 FDI 매력도가, 앞서 <Tab. 2>와 <Tab. 3>에서 검토했던 FDI 결정 요인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비교를 통해 확인해 봄으로써 FDI 매력도가 실제 유용한지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 3>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국내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나타난 12개의 주요 FDI 결정 요인과, 다른 국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Tab. 2>의 한국과 미국 등이 속한 선진국 그룹의 전체 FDI 유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요소 즉, 1인당 실질 GDP(긍정), 투자협정(긍정), 총인구 수(부정), 인플레이션(부정) 등을 더하여 총 16개의 결정 요인을 각 FDI매력도가 지표로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 5>와 같다.

<Tab. 5>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첫째, 지수의 목적상 규제와 혁신을 대상으로 하는 FDI 매력도지수 혹은 국가경쟁력 지수(The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Bloomberg Innovation Index)의 경우 FDI 결정 요인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설문만을 근거로 작성되는 지수(FDI Confidence Index)의 경우에도 결정 요인에 해당하는 지표가 포함될 수 없었다. 셋째, 결정 요인에 해당하는 지표 중 투자협정수와 외투기업수는 FDI에 특화된 지표인데도 포괄적인 국가경쟁력 지수에서만 아니라 FDI 매력도지수에서도 지표로 반영된 경우가 없었다.

IV. 한미간 FDI 유치환경 비교

1. 주요 FDI 매력도의 종합순위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FDI 매력도 혹은 국가경쟁력 지수 중 FDI 결정 요인을 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있는 지수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Tab. 5>에서 평가지표로서 FDI결정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9개의 지수와 FDI 결정 요인을 지표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3개의 지수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어떤 순위로 평가받았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12개 평가지수의 최근 5년간 한국과 미국의 종합 순위와 동순위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는 <Tab. 6>과 같다. 평균값을 구한 이유는 단기적 요인으로 순위의 변동이 발생한 것을 보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5년의 기간 중에 순위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연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데이터만으로 평균값을 구하였다.

평균값으로 비교할 때 양국간에는 ‘Ease of Doing Business’와 ‘Bloomberg Innovation Index’ 2개의 지수를 제외하고 10개의 지수에서 미국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우위에 있는 지수들 중 양국간 순위차가 가장 큰 경우는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로서

Table 5. Criteria of Attractiveness Indices: Compare with Determinants of FDI Location

Indices	Determinants	Market Size	Wage Level	Exchange Rate	Trade Barrier	Trade Balance	Economy Growth	Tax Rate	Institutional Stability	Political Stability	Trade Volume	Capital Concentration	Foreign Firms	Real GDP per Capita	Investment Agreement	Population	Inflation	No. of Determinants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	✓	✓	✓	✓	✓	✓	✓	✓	✓	✓	✓	-	✓	-	✓	✓	14
Index of Economic Freedom	-	-	-	✓	-	✓	✓	✓	-	-	-	-	✓	-	✓	✓		7
Best Countries For Business	✓	-	-	-	✓	-	✓	✓	-	-	-	-	✓	-	✓	-		6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	-	✓	-	-	-	✓	-	-	✓	-	-	-	-	-	✓	6
Global Attractiveness Index	✓	-	-	-	✓	-	✓	-	-	-	✓	-	✓	-	-	-	✓	6
Global Innovation Index	-	-	-	✓	-	-	-	✓	✓	-	✓	-	✓	-	-	-	-	5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	✓	-	✓	-	-	✓	✓	-	-	-	-	-	-	-	-	-	4
World's Best Countries To Invest In Or Do Business	✓	-	-	✓	-	-	-	✓	✓	-	-	-	-	-	-	-	-	4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	✓	-	-	-	-	-	✓	✓	-	-	-	-	-	-	-	-	3
The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	-	-	-	-	-	-	-	-	-	-	-	-	-	-	-	-	0
FDI Confidence Index	-	-	-	-	-	-	-	-	-	-	-	-	-	-	-	-	-	0
Bloomberg Innovation Index	-	-	-	-	-	-	-	-	-	-	-	-	-	-	-	-	-	0

Source: Author's analysis based on each Index

미국은 3.2위인 것에 비하여 한국은 30.6위로 나타났다. 양국간 격차가 작은 경우로서 'Best Countries for Business'는 미국 14.5위, 한국

17.5위로 나타났고, 'The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는 미국 28.3위, 한국 31.3위로 나타났다.

Table 6. Comparison of FDI Competitiveness Rankings(2016–2020) : Korea and US

Indices	2020		2019		2018		2017		2016		TOT		AVE		GAP
	US	KR	US	KR	US	KR	US	KR	US	KR	US	KR	US	KR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10	23	3	28	1	27	4	29	3	29	21	136	4.2	27.2	23.0
Index of Economic Freedom	20	25	12	29	18	27	17	23	11	27	78	131	15.6	26.2	10.6
Global Attractiveness Index	2	9	2	9	2	8	1	11	1	8	8	45	1.6	9.0	7.4
Best Countries For Business	-	-	17	16	12	19	-	-	-	-	29	35	14.5	17.5	3.0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	2	13	1	15	2	26	3	26	8	80	2.0	20.0	18.0
Global Innovation Index	3	10	3	11	6	12	4	11	4	11	20	55	4.0	11.0	7.0
World' s Best Countries To Invest In Or Do Business	8	28	18	21	-	-	-	-	-	-	26	49	13.0	24.5	11.5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	-	6	5	8	5	6	4	8	5	28	19	7.0	4.8	-2.2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2	27	3	30	3	30	4	29	4	37	16	153	3.2	30.6	27.4
The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	-	29	32	28	31	28	31	28	31	113	125	28.3	31.3	3.0
FDI Confidence Index	1	17	1	17	1	18	1	18	1	17	5	87	1.0	17.4	16.4
Bloomberg Innovation Index	9	2	8	1	11	1	9	1	8	1	45	6	9.0	1.2	-7.8

Source: Author's analysis based on each Index

한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Ease of Doing Business'는 한국이 4.8위, 미국은 7위로 나타났다. 또 'Bloomberg Innovation Index'는 한국이 1.2위로 나타난 반면에 미국은 9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검토된 의문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지표들이 실제 FDI 유입결과를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UNCTAD가 발표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IFDI 실적 국가별 순위 평균은 미국이 1위, 한국이 24.75위로 나타났다. 양국간 격차는 23.75위로 이러한 순위에 가장 근접한 경우는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으로 미국 4.2위, 한국 27.2위로 나타났다. 또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에서는 미국 3.2위, 한국 30.6위,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미국 2위, 한국 20위로 나타났다. 즉, 상기 3개의

지수는 비록 통계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의 FDI 유입 순위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 FDI를 결정짓는 것으로 검증된 다수의 변수를 평가지표로 포함하고 있는 지수가 실제 FDI 유입 순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FDI 결정 요인 변수가 가장 많이 포함된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순위가 실제 FDI 유입순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이러한 추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된 14개의 FDI 결정 요인 변수 중 3개만을 반영하고 있는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도 FDI 유입 순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점은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점이다.

셋째, FDI 결정 요인 변수를 반영하지 않고 설문 등에 의존하는 지수가 실제 FDI유입을 설

Table 7. Comparison of World Competitiveness 2020 Ranking : Korea and US

Overall Ranking		Ranking by Area			Ranking by Detailed Area				
US	KR	Area	US	KR	GAP	Detailed Area	US	KR	GAP
10	23	Economic Performance	27	2	25	Domestic Economy	11	3	8
						International Trade	41	32	9
						International Investment	30	1	29
						Employment	12	14	-2
						Prices	48	49	-1
		Government Efficiency	28	26	2	Public Finance	27	55	-28
						Tax Policy	19	12	7
						Institutional Framework	29	22	7
						Business Legislation	46	18	28
						Social Framework	31	37	-6
		Enterprise Efficiency	28	14	14	Productivity & Efficiency	38	5	33
						Labor Market	28	31	-3
						Finance	34	3	31
						Management Practices	36	17	19
						Attitude and Values	15	28	-13
		Infrastructure	16	5	11	Basic Infrastructure	20	14	6
						Technology Infrastructure	13	6	7
Scientific Infrastructure	3					1	2		
Health and Environment	31					16	15		
Education	27					15	12		

Source: Author's analysis based on IMD(2020)

명할 수 있는가이다. 'FDI Confidence Index'는 미국 1위, 한국 17.4위로 나타나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수 자체가 FDI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있는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상기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첫째, 검토된 지수들의 작성 목적이 FDI 유치 경쟁력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제, 경영활동, 이노베이션, 인적 역량 등의 특정영역만의 국가경쟁력이나 또는 전체 국가경쟁력을 대상으로 국가간 우열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

었기 때문에 FDI결정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들도 평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FDI 결정 요인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중치를 통하여 적절한 비중으로 지수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용된 자료의 작성기준시점에 시차가 존재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의 지수 중 2개의 지수를 제외하고 미국이 우위로 나타났으며 그중 8개의 지수에서 양국간 격차가 7순위 이상으로 나타난 점은 지수들이 한국과 미국간 FDI 유입실적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8. Comparison of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2020 Ranking : Korea and US

Overall Ranking		Ranking by Area			Ranking by Detailed Area				
US	KR	Area	US	KR	GAP	Detailed Area	US	KR	GAP
2	27	Enable	20	3	17	Regulatory Landscape	30	18	12
						Market Landscape	1	3	-2
						Business and Labour Landscape	28	2	26
		Attract	71	11	60	External Openness	70	10	60
						Internal Openness	78	14	64
						Formal Education	13	2	11
		Grow	25	1	24	Lifelong Learning	35	2	33
						Access to Growth Opportunities	34	2	32
						Sustainability	26	3	23
		Retain	26	12	14	Lifestyle	30	36	-6
						Mid-Level Skills	33	8	25
		Vocational and Technical Skills	30	1	29	Employability	41	7	34
						High-Level Skills	16	3	13
		Global Knowledge Skills	20	2	18	Talent Impact	25	10	15

Source: Author's analysis based on INSEAD(2020)

2. FDI 유치환경 구성 영역별 분석

이하에서는 위에서 검토된 12개의 지수 중 한미 양국의 순위가 실제 FDI 유입 순위와 동조를 보인 3개 지수를 대상으로 FDI유치환경을 구성하는 세부 영역별 순위를 비교함으로써 구체적인 FDI 유치환경상의 차이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의 2020년 평가기준은 크게 4개의 영역, 20개의 하위요소(sub-factors) 및 255개의 지표값이며 이중 통계수치가 163개, 세계 각국의 CEO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92개이다. 그밖에 순위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83개의 배경 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 총 338개의 지표값이 발표된다. <Tab. 7>은 한미 양국의 2020년 종합순위, 영역별 순위, 세부영역별 순위를 요약한 것이다.

비교에 따르면 영역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정

부효율면에서는 대등한 순위를 보였으나 경제성과, 기업효율, 인프라 순으로 열위를 보였다. 세부영역 기준으로 양국간 격차가 두드러진 영역은 기업의 생산성·효율성, 금융, 국제투자, 비즈니스 관련법, 경영관행 등이었고, 한국이 우위를 보인 영역은 공공재정, 태도 및 가치관, 사회적 여건, 노동시장, 고용, 물가 등이었다.

다음으로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의 2020년 평가기준은 크게 6개의 영역에 총 14개의 세부영역 및 70개의 지표값이다. <Tab. 8>은 한미 양국의 2020년 종합순위, 영역별 순위, 세부영역별 순위를 요약한 것이다. 비교에 따르면 대영역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유인(Attract)에서 가장 큰 열위를 보였으며, 직업과 기술, 성장, 글로벌 지식·기술, 가능성, 지속 순으로 열위를 보였다. 세부영역 기준으로 양국간 격차가 두드러진 영역은 대내 개방성, 대외개방성이었으며 고용가능성, 평생학습, 성장가능성 집근, 비즈니스·노동, 중위 수준 기술, 역량 영향

Table 9. Comparison of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9 Ranking : Korea and US

Overall Ranking		Area	Ranking by Detailed Area			
US	KR		Detailed Area	US	KR	GAP
2	13	Enabling Environment	Institutions	20	26	6
			Infrastructure	13	6	-7
			ICT adoption	27	1	-26
			Macroeconomic Stability	37	1	-36
		Human Capital	Health	55	8	-47
			Skills	9	27	18
		Markets	Product Market	8	59	51
			Labour Market	4	51	47
			Financial System	3	18	15
			Market Size	2	14	12
		Innovation Ecosystem	Business Dynamism	1	25	24
			Innovation Capability	2	6	4

Source: Author' s analysis based on WEF(2019)

력, 고위 수준 기술, 규제 순으로 열위를 나타냈다. 한국이 우위를 보인 영역은 안전과 위생 등에 근거한 라이프스타일과 경쟁강도와 R&D지출비중 등에 근거한 시장 2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의 2019년 평가기준⁵⁾은 크게 4개의 영역에 총 12개의 세부영역 및 100개의 지표값이다. 영역별로는 순위를 발표하지 않으며 종합 순위 및 12개 세부영역별 순위를 발표한다. <Tab. 9>는 한미 양국의 2019년 종합순위, 세부영역별 순위를 요약한 것이다.

비교에 따르면 세부영역 기준으로 양국간 격차가 두드러진 영역은 상품시장, 노동시장 등이었다. 그 뒤를 이어 비즈니스 역동성, 기능인, 금융시스템, 시장규모, 제도, 이노베이션 역량 순으로 열위를 나타냈다. 한국이 우위를 보인 영역은 건강, 거시경제 안정성, ICT, 기반시설 등이었는데 그중 ICT와 거시경제 안정성은 각각 전체 1위로 평가되었으며 기반시설과 건강도 각각 전체 6위와 8위로 평가받아 영역 기준으로 미국과 비교할 때 가능성 환경과 인적

자원이 우위이고 시장 및 이노베이션 생태계가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치열한 국가간 FDI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적, 비경제적 환경 중 어느 영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지를 FDI 매력도 혹은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수에서 나타난 순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국가간 상대비교를 통하여 찾아내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상대적 열위가 나타났으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비교에서 기업측면의 생산성·효율성(인당 생산성, 노동생산성, 임금수준 등), 금융(금융기관 자산규모, 주식시장 규모, M&A활성화 등), 정부측면의 비즈니스 관련 법(조세정책 등)등의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2020'

5)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시 기준에 의하여 발표되었기 때문에 2019년 기준과 순위를 검토한다.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비교에서 대내 개방성(외국인 소유권, 이민자 규모 등), 대외 개방성(사회적 이동성, 양성평등, 여성 리더십 등), 고용가능성(교육의 경제 관련성, 기능과 관련된 중등교육 등), 평생학습(경영전문대학원의 질 등), 성장가능성 접근(권한위임, 가상의 전문적 네트워크 사용 등), 비즈니스·노동(노사협력, 전문 경영 등)등의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비교에서 상품시장(경쟁강도, 고관세율과 복잡한 관세 등), 노동시장(부대비용, 고용해고 경직성, 노사협력, 외국인고용 어려움), 비즈니스 역동성(高창업비용, 모험경영에 대한 태도), 기능인(교육에서 비판적 사고 등)등의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에서 도출된 개선필요 영역은 국가 경쟁력 비교 및 FDI 유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일 뿐, 이것이 실제 우리 기업 발전 및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제고와 그 방향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 임금수준이 높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임금수준이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영역들에 대하여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와 국내기업들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연구방법론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130개가 넘는 다양한 국가경쟁력 지수 중에서 12개만을 연구에 활용하였으며 아울러 12개 지수 선택의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활용된 지수가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된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적절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모든 지표에 대하여 미국만을 대상으로 순위 비교를 한 점에 대하여 각 지표별로 1위국과의 비교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넷째, 비교에 사용된 지표가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FDI 유치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FDI 매력도 또는 국가경쟁력 지수를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세부 영역을 도출한 점에서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점을 지니며 FDI 유치 정책 입안자나 실무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References

- Aharoni, Y. (1966), *The Foreign Investment Decision Proce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liber, R. Z. (1970), "A Theor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C. P.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A.: MIT Press. 17-34.
- Billington, N. (1999),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 Empirical Analysis", *Applied Economics*, 31, 65-76.
- Blonigen, B. A. (1995), *Explaining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1997.
- Blonigen, B. A. (1997), "Firm-Specific Assets and the Link between Exchange Rat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87(3), 447-465.

- Blonigen, B. A. and R. C. Feenstra. (1996), "Effects of U.S. Trade Protection and Promotion Policies", *NBER Working Paper*, No. 5285.
- Bloomberg (2020), *Bloomberg Innovation Index*, Available from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1-18/germany-breaks-korea-s-six-year-streak-as-most-innovative-nation?sref=UAieyH5e>
- Brunetti, A. and B. Weder (1998), "Investment and Institutional Uncertainty: A Comparative Study of Different Uncertainty Measur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34, 513-533.
- Buckley, P. J. and M. Casson (1976), "A Long-Run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In P. J. Buckley and M. Casson (Eds),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Macmillan, 32-65.
- Cassou, S. P. (1997), "The Link between Tax Rat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pplied Economics*, 29(10), 1295-1301.
- Caves, R. E. (1974), "Multinational Firms,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in Host Country Markets", *Economica*, 41(162), 176-193.
- Caves, R. E. (1988), "Exchange-Rate Movemen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arvard University.
- Ceoworld Magazine (2020), *World's Best Countries To Invest In Or Do Business For 2020*, Available from <https://ceoworld.biz/2020/02/17/worlds-best-countries-to-invest-in-or-do-business-for-2020/>
- Cho, Dong-Sung and Hwy-Chang Moon (2013) "International Review of National Competitiveness - A Detailed Analysis of Sources and Rankings", Cheltenham UK·Northampton MA: Edward Elgar.
- Cho, Dong-Sung, Hwy-Chang Moon and Min-Young Kim (2009) "Does One Size Fit All? A Dual Double Diamond Approach to Country-Specific Advantages", *Asian Business & Management*, 8(1), 83-102.
- Cho, Taek Hee (2008),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FDI Using Nonstationary Panel Data in Korea by Industry",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10(1), 283-306.
- Cho, Taek Hee (2008),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FDI Using Stationary Panel Data in Korea by Industry", *Journal of Economics Studies*, 26(2), 77-105.
- Choe, Chang-Gyu (2000),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Korea", *Kukje Kyungje Yongu*, 10(1), 49-68.
- Coase R. 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 386-405.
- 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 (2020), *Global Innovation Index 2020*, Available from <https://www.globalinnovationindex.org/home>
- Culem, C. G. (1988), "The Locational Determinants of Direct Investments among Industrialized Countries", *European Economic Review*, 32(4), 885-904.
- Delios, A. and W. Henisz (2003), "Political Hazards, Experience, and Sequential Entry Strategies: The International Expansion of Japanese Firms, 1980-1998",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11), 1153-1164.
- Dollar, D. (1992), "Outward-Oriented Developing Economies Really Do Grow More Rapidly: Evidence from 95 LDC's 1976-1985",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0(3), 523-544.
- Dunning, J. H. (1977), "Trad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MNE: A Search for an Eclectic Approach", In B. Ohlin, P.O. Hesselborn and P.M. Wijkman (Eds), *The International Al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London: Macmillan, 395-431.
- Dunning, J. H. (1981),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Position of Countries: Towards a Dynamic or Developmental Approach", *Review of World Economics(Weltwirtschaftliches Archiv)*,

- 117(1), 30-64.
- Dunning, J. H. (1988), "The Eclect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n Update and a Reply to Its Critic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1), 1-31.
- Dunning, J. H. (1993):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Global Economy*, Harlow, UK: Addison-Wesley Publication Company.
- Dunning, J. H. (1998), "Loca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 Neglected Factor?",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9(1), 45-66.
- Egger, P. and H. Winner (2005), "Evidence on Corruption as an Incentive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1(4), 932-952.
- Forbes (2019), *Best Countries for Business*, Available from <https://www.forbes.com/best-countries-for-business/list/#tab:overall>
- Froot, K. A. and J. C. Stein (1991), "Exchange Rat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 Imperfect Capital Markets Approac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4), 1191-1217.
- Gastanaga, V. M., B. N. Jeffrey and B. Pashamova (1998), "Host Country Reforms and FDI Inflows: How Much Differences Do They Make?", *World Development*, 26(7), 1299-1314.
- Grubert, H. and J. Mutti (1991), "Taxes, Tariffs and Transfer Pricing in Multinational Corporate Decision Making",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73, 285-293.
- Gupta, V. K. (1983), "A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Structure, Conduct and Performance in Canadian Manufacturing", *Oxford Economic Papers*, 35, 281-301.
- Ha, Jong-Wook (2005),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Inward and Outward Direct Investment in Korea by Industry", *Korea Trade Review*, 30(2), 105-131.
- Ha, Jong-Wook and Gui-Yun Choi(2003), "A study on the Dynamic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8(1), 25-51.
- Hartman, D. G. (1984), "Tax Polic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Tax Journal*, 37, 475-487.
- Hein, S. (1992), "Trade Strategy and the Dependency Hypothesis: A Comparison of Policy, Foreign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i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95-521.
- Henisz, W. (2000),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Multinational Invest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6, 334-364.
- Hennart, J. F. and Young-Ryeol. Park (1994), "Location, Governance, and Strategic Determinants of Japanese Manufacturing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6), 419-436.
- Hines, J. R. and E. M. Rice (1994), "Fiscal Paradise: Foreign Tax Havens and American Busines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 149-182.
- Hufbauer, G. C. (1970), "The Impact of National Characteristics & Technology on the Commodity Composition of Trade in Manufactured Goods", In R. Vernon (Ed.), *The Technology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NBER Books, Cambridge, MA: 145-231.
- Hymers, S. H. (1976[1960]),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Investment*, Cambridge, MA: MIT Press.
- IMD (2020),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Available from <https://worldcompetitiveness.imd.org/rankings/wey>

- INSEAD (2020), *2020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Available from <https://gtcistudy.com/wp-content/uploads/2020/01/GTCI-2020-Report.pdf>
- Jun, K. W. and H. Singh (1996),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New Empirical Evidence", *Transnational Corporations*, 5(2), 67-106.
- Kearney (2020), *Entering the storm: anticipating risk in an uncertain world*, Available from <https://www.kearney.com/foreign-direct-investment-confidence-index/2020-full-report>
- Kemp, M. C. (1964),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London: Prentice Hall.
- Kemsley, D. (1998), "The Effect of Taxes on Production Loc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 321-341.
- Kim, Jae-Hoon (2015), "Location Choices of Foreign-invested Firms in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20(1), 93-121.
- Kindleberger, C. P. (1969), *American Business Abroad: Six Lectures on Direct Investment*,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Klein, M. W. and E. S. Rosengren (1994), "The Real Exchange Rat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Relative Wealth vs. Relative Wage Effect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6, 373-389.
- Knickerbocker, F. T. (1973), *Oligopolistic Rea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Bost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o, Suk-Nam (2006), "What has Caused Inconsistent Empirical Results in the Determinants of FDI?",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19(3), 1051-1070.
- Kogut, B. and S. J. Chang (1991),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3(3), 401-413.
- Kolde, E. J. (1968), "Business Enterprise in a Global Context", In R.N. Farmer (Ed.), *International Management*, Dickenson Pub.Co., Belmont, CA: 8-32.
- Kravis, I. B. and R. E. Lipsey (1982), "The Location of Overseas Production and Production for Export by U.S. Multinational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2, 201-223.
- Kumar, N. (1987), "Intangible Assets, Internalisation and Foreign Production: Direct Investments and Licensing in Indian Manufacturing",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23(2), 325-345.
- Lall, S. and N. S. Siddharthen (1982), "The Monopolistic Advantage of Multinationals: Lessons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S.", *The Economic Journal*, 92, 668-683.
- Lee, Jeong-Yeon and E. Mansfield (1996),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U. S. Foreign Direct Investmen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8(2), 181-186.
- Lee, Ki-Dong, Seok-Joon Hwang and Min-Hwan Lee (2008), "Horizontal and Vertical Agglomeration and the Location Choi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Economy Studies*, 21, 161-189.
- Lee, Min-Hwan and Taek-Dong Yeo (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n Service Industry",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9(1), 419-444.
- Lee, Seung-Rae, Jun-Gu Kang, Hyuk-Hwang Kim, Ji-Hyun Park, Jun-Won Lee and Ju-Mi Lee (2015), *The Determinants of Greenfield and M&A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Analysis 15-08), Sejong: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Lim, D. (1983), "Fiscal Incentive and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Journal*

- of Development Studies*, 19(2), 207-212.
- Loree, D. and S. Guisinger (1995), "Policy and Non-Policy Determinants of U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Economics of Business*, 6(1), 65-79.
- Lucas, R. (1993), "On the Determinant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Evidence from East and Southeast Asia", *World Development*, 21(3), 391-405.
- Lunn, J. (1980), "Determinants of U.S. Direct Investment in the E.E.C.: Further Evidence", *European Economic Review*, 13, 93-101.
- MacDougall, G. D. A. (1958). "The Benefits and Cost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 Abroad: A Theoretical Approach", *Economic Record*, 36.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1), "Foreign Direct Investment Trends 2020", News Release. Sejong, Korea.
- Moon, Hwy-Chang and Jin-Sup Jung (2010), "Economic Effects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Case of Korea",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17(2), 133-156.
- Mundell, R. A. (1957), "International Trade and Factor Mo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7, 321-335.
- OECD (2019), *OECD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OECD.Stat). Available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DIINDEX#>
- Owen, R. F. (1982), "Inter-Industry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A Canadian Perspective", *New Theor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238-253.
- Porter, M. E. (1985).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NY: Free Press.
- Porter, M.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NY: Free Press.
- Prachowny, M. J. (1972), "Direct Investment and the Balance of Payments of the U.S.: A Portfolio Approach", *Working Paper*, Economics Department, Queen's University.
- Ragazzi, G. (1973), "Theories of the Determinant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MF Econ Rev* 20, 471-498.
- Rhee, Dong-Kee and Young-Gon Cho (2000), "The Determinants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Korea",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4(1), 271-281.
- Root, F. and A. A. Ahmed (1979), "Empirical Determinants of Manufacturing Direct Foreign Investment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7, 751-767.
- Sader, F. (1993), "Privatization and Foreign Investment in the Developing World", *World Bank Working Paper*, No. 1202.
- Scaperlanda, A. E. and L. S. Mauer (1969), "The Determinants of U.S. Direct Investment in the E.E.C", *American Economic Review*, 59, 558-568.
- Schmitz, A. and J. Bieri (1972), "EEC Tariffs and U.S. Direct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3, 259-270.
- Schneider, F. and B. S. Frey (1985), "Economic and Political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orld Development*, 13(2), 161-175.
- Scholes, M. and M. Wolfson. (1990), "The Effects of Changes in Tax Laws on Corporate Reorganization Activity", *Journal of Business*, 63, 141-164.
- Shamsuddin, A. F. (1994), "Economic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Pakistan Development Review*, 33, 41-51.
- Statistics Korea (2021), *Record of Attracting Foreigner Investment by Industry* (KOSIS). Available from https://kosis.kr/eng/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ETITLE&par

- mTabId=M_01_01&statId=1976023&themeId=#SelectStatsBoxDiv
- Stevens, G. V. G. (1972), Capital Mobility and the International Firm, In F. Machlup, W.S. Salant and L. Tarshis (Eds), *International mobility and movement of capital*, 461-468.
- Swenson, D. L. (1994), "The Impact of U.S. Tax Reform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4, 243-266.
- The European House Ambrosetti (2020), *Global Attractiveness Index 2020*, Available from <https://www.ambrosetti.eu/en/global-attractiveness-index/>
- The Heritage Foundation (2020), *2020 Index of Economic Freedom*, Available from https://www.heritage.org/index/pdf/2020/book/2020_IndexofEconomicFreedom_Highlights.pdf
- The World Bank (2020), *Ease of Doing Business 2020* (Doing Business). Available from <https://www.doingbusiness.org/en/rankings>
- Torrisi, C. R. (1985), "The Determinant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a Small LDC",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10, 29-45.
- Tsai, P. (1994),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19, 137-163.
- UNCTAD (2020),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International Production Beyond the Pandemic*, New York and Geneva: UNCTAD.
- UNCTAD (2021), *Investment Trends Monitor*, New York and Geneva: UNCTAD.
- WEF (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9*, Available from <https://www.weforum.org/reports/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
- Wei, S. J. (2000a),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2(1), 1-11.
- Wei, S. J. (2000b), "Local Corruption and Global Capital Flow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303-346.
- Wells, L. T., Jr (1981), "Foreign Investors from the Third World", In K. Kumar and M. McLeod (Eds.)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ondon: Lexington Books, 23-36.
- Wheeler, D. and A. Mody (1992), "International Investment Location Decisions: The Case of U.S.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3, 57-76.
- Yeo, Taek-Dong (2020), "Analysis of the Prior Studies o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Korea Trade Review*, 45(6), 181-205.
- Yeo, Taek-Dong and Lee, Min-Hwan (2009), "A Study on the Features and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Korea Trade Review*, 34(4), 339-367.